■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29-164.

『三國遺事』의 高麗 睿宗代 佛牙 將來 記錄과 그 將來者에 대하여

이진한*

목 차

1. 머리말
2. 『三國遺事』의 불아와 『高麗史』의 불골에 관한 기록의 비교 분석
3. 睿宗代 불아 또는 불골의 將來와 인종 초 정국의 변화
4.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 睿宗代에는 송이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제압하려는 외교적 전략에 따라 중요한 문화적 산물을 주어 고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고려는 그 점을 십분 활용하여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불아를 송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아의 전래 과정과 고려에서의 관리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의 「前後所將舍利」조에 실려있는데, 그것을 가져온 고려의 사신은 정극영이라고 하였다. 반면 『高麗史』에는 왕자지가 송에서 불아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양 사서의 차이를 비교해보건대, 『高麗史』의 睿宗代 기록이 예종 사후 편찬된 『예종실록』을 인용한 것이 많았고, 『三國遺事』의 설화적인 내용과 달리 간결하게 예종, 인종, 명종 등의 불골(佛骨) 관련 의식을 적었으므로 『高麗史』 기록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극영이 불아를 가져왔다고 『三國遺事』에 전하는 것은 인종 초 정국의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변화에 따라 두 인물의 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종 말에 죽은 왕자지는 사돈인 이자겸 덕분에 예종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으나 이자겸 몰락 이후 배향이 철회되었다. 그에 반해 정극영은 이자겸의 반대 세력인 한안인의 당여라고 하여 1122년 말에 유배되었으나 1126년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사면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아를 가져온 것에 기억에도 영향을 끼쳐서, 왕자지의 역할은 사라지고 정극영이 그 일을 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주제어: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불아(佛牙), 송(宋), 예종(睿宗), 왕자지(王字之), 정극영(鄭克永).

1. 머리말

불교 국가에서 부처의 진신 사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배의 대상이다. 특히 불사리의 소지는 인도와 중국에서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1] 그 영향을 받은 고려에서는 정종, 현종, 예종, 인종, 명종, 고종, 공민왕 등 역대 국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佛舍利供養會를 열기도 하였다.[2]

그러므로 한국 고대의 불교 신앙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담고 있는 『三國遺事』에서도 따로 「前後所將舍利」條를 두고 불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사를 담았으며,[3]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려 睿宗代 정극영이 송에

1) 인도 아쇼카왕 이래로 불교를 믿는 대중들 사이에서 진신사리의 소지는 바로 부처의 뜻이며 통치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진신사리의 소지와 그에 대한 의례는 새롭게 즉위한 황제의 권위 확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周炅美, 「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 『東洋學』 제3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3, 364-375면.

2) 장미란, 「한국 사리 신앙의 전래와 성격」, 『한국의 사리신앙 연구』(오대산월정사 편), 운주사, 2014, 116-117면.

3) 불사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주경미, 「불사리 장엄의 기원」, 『중국 고대 불사리 장엄 연구』, 일지사, 2003, 14-21면. 본고는 불사리의 또 다른 표현인 불아와 불골 등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불사리는 석가모니의 유골로서 身骨·靈骨의 뜻이 있으며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諸橋轍次, 「佛舍利」, 『漢和大辭典』(修訂版) 권3, 大修館書店, 1985a, 714면. 불아는 석가가 열반한 후 그 몸을 다비하였을 때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던 어금니를 말하는데, 이것은 물과 불로서 손상할 수 없다고 한다. 「佛牙」, 같은 책, 712면. 불골은 석가의 뼈로, 골신사리에는 하얀색의 骨舍利, 검은색의 髮舍利, 빨간색의 肉舍利 등이 있으며, 불사리만이

서 가져왔다고[4] 하는 불아에 관한 기록이다. 주요한 내용은 불아의 전래 경위, 예종의 경배, 강화천도 시기에 잠시 사라졌던 불아를 다시 찾은 이야기, 개경환도를 겪고 일연과 무극이 살았던 충렬왕대까지 존속된 상세한 내력 등이었다. 한편 고려시대의 정사인『高麗史』에도 睿宗代 송에서 전래된 불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온 사람을 비롯하여 봉안 장소 등에 있어서『三國遺事』와는 사뭇 다른 사실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三國遺事』불아의 장래자는 鄭克永(1066-1127)이고,『高麗史』에서 불골을 받아왔던 사람은 王字之(1066-1122)라고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누가 진정한 장래자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三國遺事』「前後所將舍利」조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별로 나누고, 핵심 용어와 봉안 장소, 전거 등을『高麗史』불골 관련 기록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각 부분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 睿宗代에 불아가 고려에 오게 된 외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극영과 왕자지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여 누가 장래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아울러 두 사서에서 서로 다른 인물을 전래자로 기록하였고,『三國遺事』에서 정극영이 불아의 장래자가 되었던 이유를 인종 초의 정국변화에서 찾아보겠다. 이 연구의 결과가『三國遺事』기록의 신빙성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

쳐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였다.『法苑珠林』. 불골은 한유가 당 헌종이 궁중에 불사리를 두고 숭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아무 쓸모없는 '썩어문드러진 뼈[朽敗之骨]'라고 지칭한 이후 불사리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高麗史』와『高麗史節要』—불교 관련 기록은 양 사서가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高麗史』를 대표로 적음—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佛骨, 論佛骨表」, 같은 책, 713면.『三國遺事』「前後所將舍利」조—이하『三國遺事』—는 주로 불아에 대해 서술했고,『高麗史』는 불골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아니라 실제로 후자는 불아와 두골의 합칭이었고, 고려 고종 때 두골이 없어지면서 불아만 남는 일도 일어났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서술할 것이다.

4) 장래의 사전적 의미는 '가져오다'라는 것이고,『三國遺事』에서 정극영과 이지미가 장래했다고 하므로 '장래'와 '가져오다'를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諸橋轍次,「將, 將來」,『漢和大辭典』(修訂版) 권4, 大修館書店, 1985b, 23면.

5)「前後所將舍利」조의 기사를 인용한 연구들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무극설에 주목한 찬자와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국왕의 사리공양 또는 불아함에 대한 기록을 통해 사리신앙 또는 사리 장엄에 대한 고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연구에서는 불아를 가져온 인물에 대해『高麗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왕자지로 보았다. 남동신,「『三國遺事』속의『三國遺事』:「前後所將舍利」조」,『新羅文化祭學術會議論文集』제36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2016.

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생각된다.

2. 『三國遺事』의 불아와 『高麗史』의 불골에 관한 기록의 비교 분석

『三國遺事』의 「前後所將舍利」조는 신라와 고려의 여러 사리에 관한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에서 불두골, 불아, 불사리 100粒을 가져와 통도사 계단에 둔 것을 고려 강화천도기에 사신을 보내 확인해보니 돌함의 琉璃筒 속에 4顆 밖에 남지 않아서, 수정함에 간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다음이 신라 의상법사가 당의 道宣律師에게 부탁하여 제석궁에 있던 불아를 7일 기한으로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의상은 그 불아에 경배하고 大內에 안치하였다. 그 뒤 고려 예종 때 정극영이 송에서 불아를 가져왔고, 예종이 전각에 모셔 예를 행하였다.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아를 몇 년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았고, 개경으로 환도할 때 삼별초의 환란을 겪으면서도 불아는 무사히 일연이 살던 충렬왕대까지 전하여졌다고 한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三國遺事』라는 책이름이 무색할 만큼 주요 내용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한 覺猷, 心鑑, 無極 등의 승려가 제시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안에는 불아에 관한 설화가 많이 섞여 있어 신비로운 것들이 적지 않은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사료의 교차 확인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럼 「前後所將舍利」조의 실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 ① 대송 宣和 원년 기해[睿廟 15년]에 入貢使 鄭克永과 李之美 등이 가지고 온 불아는 지금 내전에 모셔 둔 바로 그것이다. ②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옛날 의상법사가 당에 들어가서 終南山 至相寺 智儼尊者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 이웃에 (道)宣律師가 있었다. (…) 의상법사는 도선율사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스님은 이미 천제의 존경을 받고 계신데, 듣건대 제석궁에는 부처의 40개 이[齒] 가운데의 한 어금니[牙]가 있다고 하니 우리들을 위하여 천제에게 청하여 그것을 인간에 내려 보내어 복을 삼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율사가 천사와 함께 그 뜻을 상제에게 전달하니 상제는 7일을 기한으로 의상에게 보내주었다.

의상은 예경을 마친 후 맞이하여 대궐[大內]에 모셨다. 그 후 대송 徽宗 때에 이르러 左道—도교—를 숭상하여 받드니, 당시 나라 사람들이 도참을 전파하여 말하기를 "金人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였다. 黃巾—도사—의 무리들이 日官을 움직여 아뢰기를 "금인이란 불교를 이름이니 장차 국가에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의논하여 불교를 파멸시키고 모든 승려를 묻어 죽이고 경전을 불사르며 작은 배를 만들어 불아를 실어 큰 바다에 띄워 어디든지 흘러가게 하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本朝—고려—사신이 송에 갔다가 그 일을 듣고 天花茸(천화용) 50령과 저포 300필을 배를 호송하는 관원[內史]에게 뇌물로 주고, 몰래 불아만 받고 빈 배를 띄우게 하였다. 사신들이 부처의 어금니를 가지고 돌아와 아뢰었다. 예종은 크게 기뻐하며, 十員殿(시원전) 왼쪽에 있는 작은 전각에 모시고, 항상 자물쇠로 잠그며 밖에서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혔다. 매번 왕이 친히 행차하는 날에는 전각의 문을 열고 예를 올렸다. (…) ③ 임진년(1232) 서울을 옮길 때에 내관이 바쁘고 당황하여 불아를 잊고 챙기지 못하였다. 병신년(1236) 4월에 이르러 왕의 원당 神孝寺의 승려 蘊光이 불아에 예배하기를 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은 내신을 시켜 궁중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 3일이 지난 밤중에 金瑞龍의 집 담 안으로 무슨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서 살펴보니 곧 불아가 든 함이었다. 함은 본래 안쪽 한 겹은 沈香合, 그 다음 겹은 純金合, 그 다음 겹은 白銀函, 그 다음 바깥은 瑠璃函, 또 그 다음 바깥 겹은 나전함으로 각 너비[幅子]는 서로 맞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유리함뿐이었다. 함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대궐로 들어가 아뢰었다. 유사가 의논하여 김서룡과 兩殿—御佛堂과 景靈殿—에서 지키던 자[上守]들을 죽이고자 하니 崔怡[晉陽府]가 아뢰기를 "불사로 인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므로 모두 놓아주었다. 다시 명하여 시원전 안뜰에 특별히 불아전을 만들어 봉안하고 장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또 길일을 택하여 신효사 上房 온광을 청하여 무리 30명을 거느리고 궐내로 들어와 재를 올리고 정성을 드리게 하였다. 입직한 승선 崔弘(등이) (…) 사리를 머리에 이고 예를 올렸는데 불아함의 틈 사이에 있는 사리는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진양부가 白銀合에 담아 보관하였다. (…) 이 「實錄」은 당시 내전 焚修僧이었던 전 祇林寺의 대선사 覺猷에게서 얻은 것인데 친히 본 바라 하여 나에게 기록하게 하였다. (…) 또 경오년 환도할 때의 난리는 낭패가 심함이 임진년보다도 더하였는데, 시원전의 감주였던 선사 心鑑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아를 가지고 와 도적의 환란에서 화를 면하게 되었다. 대궐에 알려져 그 공을 크게 포상하여 이름난 절로 옮겨 주었으니 지금 永山寺에 주석하고 있다. 이 역시 그에게 친히 들은 바이다. (…) ④ 忉利天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계의 1백 년에 해당되는데, 또 의상법사가 처음으로 당에 들어간 辛酉年(661)으로부터 고종 壬辰年(1232)까지를 계산하면 693년이요, 庚子年(1249)에 이르러야 비로소 7백

년이 되며, 7일의 기한이 찬다. 강도로부터 나오던 至元 7년 庚午年(1270)까지는 730년이니, 만약 천제의 말과 같이 7일 후에 불아가 천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선사 심감이 강도를 나올 때 가지고 와서 바친 것은 아마 진짜 불아가 아닌 듯하다. 이 해 봄 강도를 나오기 전에 대궐에서 모든 종파의 고승을 모아서 불아·사리를 얻고자 정성껏 빌었으나 한 매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7일의 기한이 다 차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그럴 듯하다. ⑤ 지원 21년 갑신년(1284)에 국청사 금탑을 보수하였다. 왕은 莊穆王后와 같이 妙覺寺에 행차하여 대중을 모아 經讚法會를 하였다. 그런 뒤 앞서 이야기한 불아와 낙산사의 水晶念珠, 如意珠를 군신과 대중이 모두 떠받들어 경배한 후 함께 금탑 안에 넣어 두었다. 나 또한 이 모임에 참례하여 이른바 부처님 어금니라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길이가 3촌쯤 되고 사리는 없었다. 無極이 기록한다.[6]

이상의 기록을 내용상 몇 개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해보겠다. A①은 이 이야기의 대강이다. 1119년 入貢使 鄭克永과 李之美 등이 송에서 불아를 가져왔고, 그것이 일연의 생존 시기에 內殿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의 기록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불아의 행방이 묘연해진 시기도 있고, 일연의 제자 무극은 불아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지만, 일연은 당시 내전의 불아가 예종 때 송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였다.[7]

---

6) 『三國遺事』 권4, 塔像: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 2, 고려대 출판부, 2014, 178-184면 번역 참조.

7)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조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극설이 있어서, 그것을 주요한 근거로 『三國遺事』가 일연 이외에도 다른 찬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河廷龍, 『三國遺事 사료비판』, 민족사, 2005. 이에 대해 일연이 쓴 것이 아닐 것 같은 찬을 모두 검토했지만 모두 일연의 것이 맞다며 『三國遺事』의 저자는 일연이 분명하다는 반박의 글이 나왔다. 김상현,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硏究 現況」, 『佛敎硏究』 제26호, 한국불교연구원, 2007. 한편, 『三國遺事』에 대한 또 다른 補入者가 있다고 해도 일연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가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도 있다. 이강래, 「『三國遺事』 편찬의 유기성 문제」, 『歷史學硏究』 제40호, 湖南史學會, 2010. 또한 『三國遺事』의 '후인협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연이 『三國遺事』를 저작한 시기는 1285년부터 1289년 사이였고, 무극설이 더해진 것은 1308년 7월 무렵이었다고 한다. 일연은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을 불사리 신앙으로 이겨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려 왕조가 불교와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환기시키고 신심 가득한 경이와 감탄의 눈으로 불아에 관한 내력을 소개했던 반면에 무극은 불아가 진짜인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고, 스승 일연의 불사리 영험에 대한 기술을 비판적으로 보았다고 한다. 윤선태,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史硏究』 제78호, 한국고대사학회, 2015, 366-367면.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前後所將舍利」조에 대한 내용의 분석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본고의 서술에 도움이 되었다.

A②의 내용은 의상법사가 제석궁에 있던 불아를 받아 대내에 안치하였던 이야기와 송에 있던 불아가 고려에 전래되는 경위를 담은 부분이다. 일연은 이 대목에서 은연중에 의상이 받은 불아가 정극영이 송에서 가져온 바로 그것인 것처럼 문장을 배치하였는데, 불교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불사리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불아가 고려에 왔다가 사라지게 된 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와 緣起가 있었음을 설명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 내력은 도교가 숭상되던 송 徽宗代에 금인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참언이 있었고, 그 금인이 불교라는 황건의 주장에 따라 불교를 탄압하게 되자, 불아도 배에 실려 바다에 띄워 보내게 되었다. 그때 본조—고려—의 사신이 송에 있다가 그 사실을 알고 담당 관원에게 天花茸과 저포를 주고[8] 불아를 받았으며, 고려에 그것을 가져와 예종에게 바쳤다는 것이다. 天花茸과 저포는 귀한 불아를 얻어가는 사람이 그것이 있던 사찰에 바치는 공양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불아를 받은 사람을 정극영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불아를 배에 띄워 보내려 했던 때에 송에 있었던 사신이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天花茸과 저포를 內史에게 주고 불아를 받은 사람과 가져온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A③은 몽골의 침입을 피해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불아를 되찾는 이야기이다. 1236년 4월에 신효사 승려 온광이 불아의 예배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뒤늦게 불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여 『紫禁日記』에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기록된 김서룡을 조사하였으며, 그로부터 사흘 만에 누군가 그의 집에 불아를 던져주어 되찾게 되었다. 유사가 김서룡 등을 처벌하려고 하자 최우가 불사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풀려나게 되었고 온광의 주재 하에 재를 올렸는

8) 天花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漢和大辭典』에는 글자 모양이 비슷한 天花蕈이 버섯의 하나로 느타리나 잎새버섯 또는 천화채라고 하였다. 天花菜는 山西 五臺山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松花와 같이 생겼고, 향기가 많으며 蕈白色으로 먹으면 매우 맛있다고 하였다. 諸橋轍次, 「天, 天花蕈, 天花菜」, 앞의 책, 1985a, 477면 참고. 고려 사신이 불아를 받기 위해 관원에게 뇌물로 준 것이므로 天花茸은 중국에서도 귀한 식재료이자 약재였을 것이다. 한편 저포는 모시로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고려의 대표적인 교역품의 하나였다.

데 불아함의 구멍에서 나타나는 사리의 수효가 많았다고 한다. 본래 불아를 담은 그릇은 안쪽부터 沈香合, 純金合, 白銀函, 瑠璃函, 螺鈿函 순이었는데, 되돌아온 것은 사리를 담은 유리함 뿐이었다.[9] 합은 두껑이 있는 둥그런 모양의 그릇일 것이고, 함은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뚜껑이 있는 것이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불아는 유리함에 담겨있었으며, 최우가 다시 백은함에 담아 모셨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불아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사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아와 더불어 사리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불사리는 침향합, 순금함, 백은함 등과 더불어 끝내 찾지 못하였다.[10] 「前後所將舍利」조에서 일연이 하고자 하던 이야기의 핵심이 불아였기 때문에 주로 그것에 대해 서술했지만, 불아가 있던 함에 부처의 또다른 사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일연은 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實錄」을 '각유'에게 얻었으며, 각유는 일연에게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하였다. 각유의 생존 연대를 고려하건대[11] 그가 본 것은 백은합에 담아 모신 불아였고, 그가 전해들은 것은 1232년 강화로 천도하면서 불아가 없어졌다가 1236년 불아를 되찾는 과정과 그것을 담은 합과 함의 재질 및 순서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개경으로 환도할 때

9) 불사리를 담는 함은 장엄구의 하나인데, 중국의 황실발원 사리장엄구들은 당시 최고 계층의 후원을 받았던 만큼 문화의 정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발원자의 의도와 정책 등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周炅美, 앞의 글, 363-364면. 송에서 만들어져 고려에 전래된 불아를 담은 금함 역시 그 분야의 정수였을 것이며, 그 이후 고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머지 함이나 합도 당대에 최고 기술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10) 강화천도 시기에 혼란한 틈을 타 불아를 가로챈 인물은 김서룡이었던 것 같다. 그는 이백전으로부터 함을 전달받았다는 기록에 따라 불아의 소재를 추궁당하자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조사가 시작된 후 3일이 지나 김서룡의 집 담 안으로 불아가 담긴 유리함을 던져 그것을 가져다 바쳤으며, 유사가 김서룡 등을 죽이려 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불아가 김서룡에게 인수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김서룡의 집 담 안으로 불아가 든 유리함을 던졌는데도 그것이 깨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은 처음부터 김서룡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나 김서룡이 누구에게 전달했다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임이 분명해지자 위기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다시 찾아 일부를 되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佛舍利와 더불어 불아함의 상당 부분이 없어진 채 돌아왔음에도 김서룡의 처벌을 무마시키려 했던 무신집정 최우도 이 사건의 배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우는 불아를 백은합에 담아 모시는 공덕을 쌓게 되었다. 이 일화는 당시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11) 각유는 1232년에 강화도로 서울을 옮길 때 불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일화가 적힌 『實錄』을 일연에게 전해준 인물이다. 이외에도 각유는 1258년 낙산사의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모셔둔 명주성이 몽고군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자 기림사 주지로서 왕에게 궁궐의 어부에 옮겨둘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최광식·박대재 역주, 앞의 책, 193면.

삼별초의 반란이 일어나 혼란함이 강화천도보다 더 심하였으나 시원전의 감주 심감이 잘 보관하여 무사하였으며, 이것은 일연이 심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한다.

A④에서는 불아가 도리천의 7일에 해당되는 700년 만에 천궁으로 돌아간다는 설과 같이 불아는 되돌아갔으며, 심감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불아는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도에서 나오기 전에 원종이 여러 종파의 승려를 모아 佛牙·舍利를 얻고자 기도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前後所將舍利」조의 주요 내용이 불아였으므로 睿宗代 들어온 불아의 소재와 행방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다가, 불아를 분실했다가 다시 찾을 때 불아함을 묘사하면서 불아 이외에 사리가 등장하고 원종이 찾고자 한 것에서 '불아·사리'로 바뀌어 나타난다.

A⑤는 불아가 국청사 금탑에 모셔졌다는 것이다. 1284년에 충렬왕이 장목왕후와 함께 妙覺寺에 행차하여 신도와 함께 경하 찬미하고, 심감이 구한 불아, 낙산사의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새롭게 보수한 국청사의 금탑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건대, 묘각사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러 신도들이 불아를 친견하는 기회가 있었으며, 이때 무극 역시 보았는데 길이가 세 치 정도 되었으며 사리는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불아와 사리를 구분하고, 불아 만이 전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상에서 일연은 의상이 천제에게 받았고 예종 때 송에서 가져온 불아에 관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강화에 천도하면서 불아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 개경환도 때 불아를 보전한 일, 국청사 금탑에 있는 불아를 본 일들은 모두 내용이 상세하고 그것을 실제 경험한 승려가 전한 것이었다. 반면에 정극영이 불아를 가져왔다는 것부터 예종이 예불한 일까지는 그에 대한 전달자를 밝히지 않았으니, 오래전부터 전해진 설화를 옮겨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다행히 『高麗史』에 비교할 만한 사료들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1. (예종 15년 5월) 무진일에 불골을 궁궐 안[禁中]으로 들여왔다. 처음에 王字

之가 사신으로 송에 갔다가 귀국하는 편에 송 황제가 金函에 佛牙와 頭骨을 담아서 하사한 것을 外帝釋院에 안치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山呼亭으로 옮긴 것이다.[12]

B2. (인종 7년 하4월) 大安寺에서 佛骨을 맞이하여 仁德宮에 두었다.[13]

B3. (인종 8년 추7월) 乙卯日에 불골을 重華殿에서 받들었다[供].[14]

B4. (명종 12년 5월) 甲申日에 近臣을 보내 불골을 十員殿에서 맞이하였다.[15]

B1은 불골이 대궐로 들어온 경위와 睿宗代 안치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송에 사신으로 갔던 왕자지가 금함에 담아 가져온 불골을 외제석원에 두었다가 산호정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B2는 1129년 4월에 대안사에 있던 불골을 맞이하여 인덕궁에 두었다는 것이고, B3은 1130년 7월에 그 불골을 重華殿에서 받드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며, B4는 1182년 5월에 近臣을 보내 불골을 가져오게 하여 명종이 十員殿에서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고려에서 예종 이전의 왕들도 불사리를 모시고 의식을 치른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946년(定宗 1)에 정종이 儀仗을 갖추고 佛舍利를 받들고 걸어서 10리 떨어진 開國寺에 이르러 奉安하였고,[16] 1021년(현종 12) 5월에 尙書左丞 李可道가 왕명을 받고 慶州 高僊寺의 金羅袈裟와 佛頂骨, 昌林寺의 佛牙를 가져왔으며, 모두 內殿에 안치하였다.[17] 그런데 현종이 행사를 치렀던 불정골과 불아는 왕실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

12) 『高麗史』 권14 世家; 『高麗史節要』 권8 예종 15년 5월.

13) 『高麗史』 권16 世家. 『高麗史節要』 권9 인종 7년 하4월조에는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延' 대신에 '迎'으로 되어 있다.

14) 『高麗史』 권16 世家. 같은 내용이 『高麗史節要』 권9 인종 8년 추7월조에 실려 있으며, 인종이 궁궐에 불골을 모신 것을 비난하는 사신의 논이 추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당 헌종이 부처의 사리를 궁궐에 맞아들인 것에 대해 한유가 비판한 사례를 들고, 어진 왕이[仁宗] 부처의 썩고 부패한 뼈를 궁중에 맞아들인 것은 잘못이며, 이후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충신과 의사 덕분에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다는 것이 근거가 없으며, 왕은 근검하고 자애롭고 인자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화를 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129년과 1130년에 잇달아 인종이 睿宗代 송에서 전래한 불골을 궁궐에 안치하고 받드는 행사를 한 것은 이자겸의 난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 송 황제가 하사한 불골을 국왕이 생활하는 공간에 두고 경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15) 『高麗史』 권20 世家 명종 12년 5월; 『高麗史節要』 권12.

16) 『高麗史』 권2 世家 정종 원년.

17) 『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2년 5월 무자.

면 李可道—뒤에 王氏를 하사 받음—를 보내 高僊寺의 佛頂骨과 昌林寺의 佛牙를 개경으로 가져와 내전에 모셨기 때문이다.

반면 예종이 불골을 들여와 궁궐 안의 산호정에 봉안한 것은 그것이 왕실의 소유였음을 천명한 것이며, 그의 아들 인종과 그의 손자 명종 등이 모두 궁궐 내에 불골을 안치하고 의례를 행하였던 것은 사리가 갖는 상징성을 이용하여 왕권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18] 인종이 1129년 인덕궁과 1130년 중화전에 불골을 모시고 행사를 한 것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으로 대궐이 불탄 이후 민심을 수습하면서 자신이 고려의 정통 군주임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명종도 무신정권으로 국왕의 권위가 추락해있었다는 점에서 인종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의례를 치렀던 것이었다.

또한 예종은 탑에 안치하지 않고 사리를 언제나 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전각에 불골을 모셨으며, 이러한 방식은 사리를 친견하여 그 신이를 보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사리장엄 방식의 한 특징이다.[19] 그러므로 불골이 한 곳에만 있지 않았고, 예종 때 외제석원에서 산호정으로, 인종 때는 대안사에서 인덕궁으로 각각 옮겼고, 1130년에는 중화전에서 의례를 하였으며 명종 때에는 시원전으로 移運되어 의례가 치러졌다.[20]

---

18) 고려 3대 임금 정종은 태조가 창건한 개경 내의 사찰인 개국사에 나아가 불사리를 받들어 모셨고, 8대 현종은 불아를 개경으로 모셔와 예불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예종도 정종과 현종의 경우와 같이 부처의 진신사리 소지와 그에 대한 예불의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과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다고 한다. 조경시, 「高麗 顯宗의 佛教信仰과 정책」, 『韓國思想史學』 제2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181-187면. 다만, 정종대의 불사리와 현종대의 불아는 睿宗代의 불아와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三國遺事』와 『高麗史』에서 불아 장래의 기록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송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공통되기 때문이다.

19) 불사리 장엄을 봉안하는 위치는 탑기 아래[地宮], 탑신부[天宮], 전각이 있었다고 한다. 주경미, 「중국 고대의 불사리장엄 방식」, 앞의 책, 49면, 50면.

20) 「前後所將舍利」조에서 강화천도 때 잃어버린 불아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불아함을 받은 기록[佛牙函准受記]은 사리의 移運이 많았음이 알려준다. 김혜완, 「고려후기 불사리신앙—진신과 분신사리신앙—」, 『역사와현실』 제91호, 한국역사연구회, 2014, 82-83면. 그것은 일종의 영수증으로 불아가 외부로 나가게 될 때 그 날짜와 장소, 인수자, 인계자 등을 적었을 것이다. 실제로 1236년에 '왕의 원당 神孝寺의 승려 蘊光이 불아에 예배하기를 청하여 왕에게 아뢰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건대 불교계의 고승이 불아를 모시고 예배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다가 의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이와 같은『高麗史』내용을『三國遺事』「前後所將舍利」조—이하『三國遺事』로 줄임—와 비교해보겠다.『高麗史』에서는 왕자지가 송에서 가져온 불골이 불아와 두골의 합칭이라고 하였고, 이후 불골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데,『三國遺事』는 처음부터 불아만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정극영이 가져온 것[將來佛牙], 송 徽宗代 불교를 탄압하면서 바다에 띄워보내려 했던 것, 蘊光이 경배하려 하였던 것 등이 모두 불아였고, 강화천도 때 없어졌다가 찾은 것은 불아함이었다. 그것을 모신 곳은 불아전이었고, 각유가 그 함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한 것 역시 불아였다.[21]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불아와 사리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즉, 불아전에서 고종을 모시고 정성을 드릴 때 불아함의 구멍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리의 수효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기 전에 원종은 대궐에서 모든 종파의 고승을 모아 불아와 사리를 빌어 구하기에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며, 무극은 불아를 직접 보았지만 사리는 없었다고 하였다.[22]

『高麗史』의 불골과『三國遺事』의 불아는 같은 불사리의 범주에 드는 것이지만, 전자는 불아와 두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그런데도『三國遺事』의 찬자는 睿宗代 송에서 가져온 불골은 강화천도와 개경환도, 삼별초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두골은 없어지고 불아만이 충렬왕대까지 전해졌으므로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애초에 정극영 등이 불아만을 가져온 것으로 서술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기록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1)『三國遺事』에서 불아만 단독으로 서술된 것은 다음과 같다. "將來佛牙"; "載佛牙 泛於大海"; "密授佛牙"; "但流空舡 使臣等旣得佛牙來奏"; "釋溫光請致敬佛牙"; "李白全受佛牙函"; "得左番謁者金瑞龍 佛牙函准受記來呈"; "看乃佛牙函也"; "十貞殿中庭特造佛牙殿安之"; "朕自亡佛牙已來自生四疑"

22)『三國遺事』에서 불아와 사리가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는 서술은 다음과 같다. "佛牙區穴間舍利不知數"; "於大內集諸宗名德乞佛牙舍利精勤雖切"; "右佛牙與洛山水精念珠如意珠"; "臣與大衆皆瞻奉頂戴 後并納金塔內"; "予亦預斯會而親見所謂佛牙者 長三寸許而無舍利焉 無極記" 이에 대해 권희경은「前後所將舍利」조의 내용이 사리, 불아, 가사, 경전 등이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계속 수입되고 보관되었는가를 무극이 기록한 것이며, 1284년 국청사 금탑에 모셔진 심감 선사가 환도할 때 바친 불아사리를 본 무극이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權熹耕,「三國遺事를 통해 본 高麗的 시각」,『書誌學硏究』제20집, 서지학회, 2000, 164-169면.

다음으로 송에서 불아를 얻는 과정의 차이이다. 『三國遺事』에서는 정극영 일행이 송에 갔을 때 불아를 바다에 떠내려 보내고자 하는 것을 알고 사신 중의 한 사람이 담당 관원에게 天花茸과 저포를 주고 불아를 몰래 받아 가져왔다고 하였다. 반면에 『高麗史』에는 왕자지가 송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송 황제가 불골을 금함에 담아 하사하였다고 한다. 고려에 오게 된 사유를 비교하건대, 불골이 송 황제로부터 고려 국왕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高麗史』의 기록이 실제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23]

그리고 송 휘종은 금함에 불골을 담아주었다고 하는데, 『三國遺事』에는 불아가 가장 안쪽의 침향합에서부터 나전함까지 5중으로 담겨있었고, 그 가운데 순금합은 안쪽 두 번째였으며, 그것도 금함이 아니라 순금합이었다고 한다. 함은 장방형에 뚜껑이 석쇠 등으로 붙어있는 것이고, 합은 보통 둥근 모양에 두껑이 분리되는 것이니 분명히 다르다.[24] 다만, 서로 다른 시기의 기록이므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황상, 『高麗史』의 내용과 같이 예종 때 송에서 가져온 불골은 금함에 담겨져 왔고, 이후 고려의 역대 국왕들이 사리공양회를 거행하면서 금함 이외에 나전함과 유리함 등이 새롭게 제작되면서 『三國遺事』의 기록과 같이 금함의 안쪽에 침향합 등이, 금함의 바깥쪽에는 나전함 등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불골 또는 불아를 봉안하던 곳도 양 사서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三

23) 남동신, 앞의 글, 37면.

24) 중국에서 불사리를 담는 용기는 甁, 鉢, 圓形盒, 方形函, 棺槨, 靈帳, 塔 등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방형함은 석제와 더불어 금·은·동 등 금속제가 있는데, 후자는 대부분 내용기로 사용되었으며, 한 사리장엄구에서 같은 형태의 함을 크기가 다르게 제작하여 여러 차례 겹쳐서 안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경미, 「중국 고대의 불사리장엄 방식」, 앞의 책, 50-60면. 이에 대해 한국 사리장엄의 연구에서는 사리기가 외함, 내함, 사리병으로 구성되며, 사리병을 안치하는 내함의 형태는 盒,·壺·覆鉢·圓筒·甁이고 재질은 금·은·동·청동·수정·곱돌[蠟石] 등이 있었다고 한다. 사리를 직접 봉안한 사리병의 재질은 유리가 가장 많고, 수정·금·은, 금동, 청동, 호박, 마노 등도 있었다고 한다. 신대현, 「사리·사리신앙 및 사리장엄의 개념」,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26-27면. 또한 함의 幅子는 너비를 말하는데, 같다고 했으므로 합 또는 함의 형태가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방형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신대현, 「한국 고대 사리장엄의 양식」, 같은 책, 175-176면. 송에서 전래된 불아의 금함도 정방형이었을 것이지만 그 안쪽의 침향합이 반드시 정방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合은 원형합을 뜻하며, 정방형 외함의 안쪽에 둥근 합이 들어가도 짝이 잘 맞을 것이므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國遺事』에서는 송에서 가져온 불아를 예종이 시원전에 두고 경배하였으며, 강화천도 시기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이후에 강도 궁궐의 시원전 안뜰에 불아전을 따로 만들어 안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高麗史』에서는 1120년에 외제석원에 있던 불골을 산호정으로 옮겨 봉안했다고 하였으니 1120년 5월 이전에는 궁궐밖 송악산에 있는 외제석원에 있다가 궁궐 안의 禁苑에 있는 산호정으로 옮겨 모셨던 것이다. 이어 1129년에 대안사에서 인덕궁으로 옮겼다고 하므로[25] 그 사이 대안사에 안치되었다가 인덕궁에 모셔지게 된 것이며, 다음 해에는 중화전에서 인종이 의식을 치렀다.[26] 1182년 5월에는 명종이 近臣을 보내 불골을 十員殿에서 맞이하였는데,[27] 시원전은 궁궐 안의 내전 가운데 하나였다.[28]

『高麗史』의 불골과 『三國遺事』의 불아가 봉안된 곳을 비교하면 전자는 처음 봉안된 곳이 외제석원이었다가 산호정, 대안사, 인덕궁, 중화전, 시원전의 순으로 바뀌었다. 반면 후자는 睿宗代부터 시원전에 있었고, 강화천도기에 불아를 되찾은 이후에도 강도 궁궐의 시원전에 모셔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골의 봉안 장소에 관한 『高麗史』 기록이 훨씬 다양하고 상세하다.

---

25) 인덕궁은 이전의 연덕궁이다. 연경궁은 처음에 후비의 궁전이다가, 인종 4년부터 왕궁이 되고 이름을 연경궁에서 인덕궁으로 바꾸었다. 인덕궁은 중대사 의논, 출정의례 거행, 경연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1126년 이자겸의 난 때 대궐이 불탄 이후 중요한 왕궁으로 역할을 하였다. 金昌賢, 「고려 개경의 별궁」,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a, 237-239면.

26) 중화전은 대궐 다음으로 중요한 곳인 수창궁 소속으로 송의 조서를 영접하고 사신을 인견하는 곳이었다. 같은 책, 220-230면.

27) 명종 12년의 기사는 대궐 시원전의 불골을 수창궁에서 맞이해 예배했다는 의미로, 당시 명종은 화재로 불타 복구 중인 대궐을 기피해 수창궁에 머물고 있어서 불골에 대한 예배를 수창궁에서 행했던 것이며, 곧 시원전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한다. 김창현, 「고려의 여러 도량과 개경」,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b, 272면.

28) 시원전은 궁궐 내 왕실의 원당인 內願堂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제38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 황인규, 「고려시대 내원당과 고승」, 『보조사상』 제37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 한편, 시원전은 궁궐 내에 있던 전각의 하나였는데, 1159년 정월에 금중인 시원전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 김창현, 앞의 책, 2011a, 271면; 『高麗史』 권53 五行志 1. "五行二曰火 (…) 毅宗 (…) 十三年正月辛巳, 禁中十員殿灾." 시원전에서 불교의식이 치러졌는데, 시원전에 금중 또는 禁字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궁궐의 중요한 곳이었다. 李奎報, 「十員殿行香文」, 『東國李相國集』 권39 佛道疏·醮疏. 금중은 천자가 거처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宮中, 禁內, 禁裏, 禁裡 등과도 통하는 말이다. 諸橋轍次, 「禁中」, 『漢和大辭典』(修正版) 권8, 大修館書店, 1985c, 481면.

요컨대 두 사서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고종 이후의『三國遺事』부분을 배제하고 불아와 불골의 기록을 대조해보건대, 역대 실록을 참고하여 편찬된『高麗史』와 당대의 전승과 각유 등이 전해준 자료에 근거하여 편찬된『三國遺事』사이에 구별되는 것들이 많았다. 불골의 구득과정이나 그것을 봉안한 장소와 국왕이 의례를 행한 것에 관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인『高麗史』의 기록이 사실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견주어지는 부분의『三國遺事』기록은 신빙성에 의심가는 면이 있었다.

3. 睿宗代 불아 또는 불골의 將來와 인종 초 정국의 변화

『三國遺事』와『高麗史』라는 사서의 성격에서 비롯된 기록상의 차이는 다른 사서의 내용을 통해 보완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양 사서에서는 불아 또는 불골의 장래자를 각각 정극영과 왕자지로 명확히 다르게 기록해놓았으므로 어느 한 인물이 옳다면 다른 인물의 역할은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장래자를 밝혀내는 일은 문화사나 사학사적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도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 예종과 인종 초의 외교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왕자지와 정극영의 사신으로서의 활동을 재조명하여 장래자의 실체에 접근해볼 것이다. 먼저 睿宗代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해보자.

1) 예종대의 대외관계와 왕자지 불골 장래

睿宗代에는 유례없이 많은 고려의 사절이 송에 갔다. 1071년 문종이 대송통교를 재개한 이후 1105년에 예종이 즉위할 때까지 고려 사신이 송에 갔던 것은 약 36년간 총 12회로 대략 3년에 1번 정도였다.[29] 그에 반해 예종이 재위하던 1105년부터 1122년의 17년간에는 8회나 되었고, 불골이 장래되었던 1111년부터 1118년의 8년 사이에는 6회나 가서 거의 매해 사절이 갔

29) 金庠基,「肅宗·睿宗의 治世와 女眞征伐」,『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서울대 출판부, 1985, 184면.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송에서 고려에 보낸 사절도 1110년 국신사 왕양을 비롯하여 총 5회로 어느 때 보다도 많았다.[30]

이처럼 고려와 송 사이의 사신왕래가 왕성했던 것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군사적 강자로 군림해왔던 요가 쇠약해지고 여진의 세력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송이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제압하려는 외교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은 1110년에 병부상서 왕양을 고려에 보내 송 휘종의 밀지를 전달하면서 고려국왕이 이미 北朝—요—의 책봉을 받아서 송과 요의 친선관계를 고려해 고려를 책봉하지 않지만, 그동안 고려국왕에게 임시라는 의미의 '權'을 붙여 사용하던 것을 없앤 것은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다.[31] 송의 외교문서에서 '權高麗國王'이라고 칭하던 문종·숙종 등과 달리 예종을 '高麗國王'이라고 특별히 우대한 만큼, 고려가 遼보다 송에 대해 더욱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1115년 정월에 生女眞의 完顔阿骨打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금이라고 하였다.[32] 곧이어 금의 공격으로 요가 망하게 될 형세가 되자, 1116년 4월에 고려는 요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여[33] 조공·책봉 관계를 해소하였다. 이에 송은 고려를 책봉국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 고려는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睿宗代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인 패권을 쥐고 있던 요가 급격히 쇠약해지자 송이 고려와 여진의 힘을 빌려 '北伐'을 이루기 위해 고려에 대한 외교를 더욱 강화하던 시기였다. 특히 왕자지가 송에 갔던 1113-1115년 사이에 금이 건국하였고, 『三國遺事』에서 정극영이 불아를 가져왔다고 하는 1118·1119년은 금이 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요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으며, 고려가 송의

30) 朴龍雲,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제81집, 일지사, 1995;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下)」, 『韓國學報』 제82집, 일지사 1996; 「표1, 高麗·宋 使節派遣表, 제2기」, 『高麗 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2002, 154-158면.
31) 『高麗史節要』 권7 예종 5년 6월.
32) 『金史』 권2 太祖本紀 收國 원년 정월.
33)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1년 하4월 신미.

협공 제안을 거절하여 송이 금과 제휴하기 직전의 시기였다. 그러므로 송은 고려를 의례상으로 요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고려가 원하는 최신·최고의 문화적 산품을 수시로 내려주어 고려의 환심을 사고자 하던 때였다.[34]

고려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을 빌미로 송에 대한 친선외교 강화를 통해 고려가 구하려고 했던 귀중한 문화적 산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예종은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서[35] 송의 협조 아래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예종 때 慧照國師가 왕명을 받고 송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遼本大藏經」 3부를 사서 가져왔으며 定慧寺·海印寺·許叅政宅 등에 전한다고 하였다.[36] 이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휘종의 친필을 내려준 일이었다. 예종이 安和寺를 중수하면서 송에 사신을 보내 뛰어난 필적[妙筆]의 편액을 구하자, 송 휘종이 그것을 듣고 손수 불전의 편액에 '能仁之殿'이라는 글씨를 써 주고, 송 太師 蔡京에게 명하여 절 문의 편액으로 '靖國安和之寺'라는 글씨를 쓰게 하여 하사하였고, 16나한의 塑像도 보내주었다.[37] 1118년 4월에 안화사가 낙성되었으므로 그 편액과 나한 소상을 가져온 것은 그 이전에 송에 간 고려 사신들이 준비하여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이 시기에 송에 가서 유학을 하고 급제한 권적이 송 휘종을 알현하고 『법화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자, 이에 감동한 휘종이 준 관음상과 법화탑을 받아 귀국하였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38]

---

34) 文宗代 이후 고려는 요와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송·요 간의 외교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한편으로 송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였는데, 학생들의 송 국자감 입학 또는 악기의 전래 등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선진문물 수입은 송측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은 것이며, 송도 필요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얻고자 고려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박용운, 앞의 글, 166-168면.

35) 예종은 진표율사가 미륵보살에게 받았다고 하는 聖簡을 궁궐에 모셔 경배하기도 하였다. 불골간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의 眞表律師가 미륵보살에게 『占察經』과 佛骨簡子를 받았고, 그것을 속리산 深公[永深]에게 전하고, 심공이 다시 心地에게 전하여 桐華寺 讖堂 북쪽 작은 우물에 보관하였다. 예종이 聖簡[불골간자]을 궐내로 맞아들여 예배하였으나, 갑자기 '九者 簡者' 한 개를 잃어버리자, 牙[상아 간자]로써 대신하여 본래의 절로 돌려보냈다. 지금[일연의 당대]은 그것이 점차 변하여 같은 색이 되어 새것과 옛것을 분간하기 어려워졌으며, 그 재질은 상아도 옥도 아니라고 하였다." 「眞表傳簡과 心地繼祖」, 『三國遺事』 권4 義解.

36) 「前後所將舍利」,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37)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3년 하4월 정묘.

이처럼 불골의 장래는 송이 외교적 협력을 얻기 위해 고려에게 전례 없이 귀중한 문물을 내려주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송의 일방적인 시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고려와 고려 사신들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사신이 그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高麗史』에 송 휘종으로부터 불골을 받아왔다고 하는 왕자지의 외교 활동에 대해 검토해보자.

왕자지는 고려 太祖代 활약한 왕유의 현손이자 숙종의 즉위를 도운 王國髦의 처남이며 음서 출신으로, 李資義 난 때 궁문을 지켜 공을 세웠으며, 睿宗初 윤관의 여진정벌에 참여하고 군공을 세워 출세하기 시작하였다.[39] 그는 1113년 12월에 禮賓卿·樞密院知奏事가 되었고,[40] 1114년 3월 殿中監을 제수받았다.[41]

이때 1113년 9월에 송에 갔던 西頭供奉官 安稷崇이 1114년 6월에 귀국하면서 송의 휘종이 고려에 新樂과 曲譜·指訣圖 등을 준다는 내용의 송 明州의 牒을 가지고 왔다.[42] 이에 干支로 보건대 나흘 만에 왕자지가 戶部郎中 文公彦과 함께 악기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러 송에 갔다.[43] 송이 새롭게 완성한 궁중악인 대성악을 고려에 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안직숭이 전해오자마자 불과 나흘 만에 왕자지가 사명을 받아 나간 것은 고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왕자지가 송에서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115년 4월에 예종이 중서문하성의 侍臣과 추밀원의 承制 등과 함께 順天館의 樂賓亭에서 잔치를 베풀어주었으며, 왕이 內侍 林景淸을 보내 친히 지은 시 1수

38) 『高麗史』는 송과의 외교에 관한 기사가 비교적 자세한 편인데, 송에 유학을 하러 갔던 권적이 관음상과 법화탑을 가져온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불교적인 내용 때문인지 기록되지 않았다. 「帝親試通」, 『海東傳弘錄』; 了圓, 오지연 옮김, 「황제가 친히 시험을 보아 통과하다」,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 동국대 출판부, 2017, 139면.
39) 「王儒傳 附 字之」, 『高麗史』 권92; 「邵台輔傳 附 王國髦」, 『高麗史』 권95.
40)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8년 12월 병진.
41)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9년 3월 기축.
42) 朴景綽, 「謝賜新樂表」, 『東人之文四六』 권2 事大表狀; 『高麗史節要』 권8 예종 9년 6월.
43) 『高麗史』 권13 世家 예종 9년 6월 정미.

를 보이고 아울러 술과 과일도 하사하였다.[44] 이어 같은 해 7월에 그는 吏部尙書로서 戶部侍郎 문공미와 함께 謝恩兼進奉使로 송에 갔으며, 아울러 과거에 급제한 進士 金端 등 5인을 송의 太學에 입학시켰다.[45]

그는 1116년 6월에 고려가 송에 보낸 선물인 國信物에 대한 回賜와 더불어 別賜·密賜·特賜의 물품 등을 별도를 받아왔으며,[46] 대성악과 더불어 禮器·祭服과 종묘에 바칠 曲譜, 예기의 款識 등을 하사받아왔다.[47] 그리고 송에 갔을 때 왕자지 등이 大上國寺, 楊州의 天寧萬壽觀, 抗州의 天竺寺, 閩州의 金山寺, 泗州의 普炤王寺에서 재를 열어 송 황제의 장수를 축원해준 것에 대해 휘종이 고려 국왕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 있었다. 정사 왕자지가 여러 사찰에 재를 올리는 일을 했던 것은 그의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왕자지가 불골을 가져왔다는『高麗史』예종 14년의 기록에 앞서는 왕자지의 행적을 서술하였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1113년에 송에 갔던 안직숭이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왕자지가 서둘러 송으로 떠난 것은 이례적이며, 그가 1114년에 신악기를 준 것을 사례하러 갔다가 돌아온 후 얼마지 지나지 않아 다시 송에 갔다는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고려의 사신이 송에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 위험하기는 하지만, 송 황제의 하사품이나 사행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왕자지가 사신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야 연이어 갈 명분이 될 텐데, 사신의 조건으로 가장 중시했던 학문적 능력도 뚜렷하지 않았고 인품과 청렴함도 갖추지 않았던 것 같다.[48]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귀국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송에 갔을 뿐 아니라 두

44)『高麗史』권14 世家 예종 10년 4월 갑인.
45)『高麗史』권14 世家 예종 10년 7월 무자.
46)『高麗史』권14 世家 예종 11년 6월 을축.
47) 金富佾,「謝賜禮器祭服薦享曲譜禮器款識等表」,『東人之文四六』권2 事大表狀.
48) 박용운, 앞의 글, 182-184면. 왕자지는 개국공신 王儒의 후손이며, 숙종대 공신 왕국모의 처남으로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인품이나 청렴함을 갖춘 것 같지 않다. 그 사례로 왕자지와 함께 송에 갔던 부사 문공인—문공미의 개명—은 일찍이 요에 사신으로 갔을 때 접빈관에게 호사스런 선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문공인은 부사로서, 1115년 정사 王字之와 함께 송에 갔는데, 왕자지 역시 부자로서 사치를 부렸고, 두 사람이 몸치장을 뽐내며 힘써 서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고 한다.「文公仁傳」,『高麗史』권125.

번째 사행에 앞서 왕자지를 위해 예종이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시까지 지어준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왕자지가 연이어 갔다는 것은 예종이 그에게 그 이전에 송에 가서 수행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표방된 왕자지의 두 번째 사행 목적은 대성악 등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는 것이었지, 불골을 가져오는 일은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왕자지가 고려에 돌아올 때는 송으로부터 고려가 보낸 국신에 대한 회사품 이외에도 別賜·密賜·特賜의 명목으로 여러 물품을 가져왔다. 별사는 별도로 준다는 뜻으로 고려와 송의 외교에서 가끔씩 사용되지만, 밀사는 공식적으로 주기에 어려운 것을 은밀하게 준다는 의미로 유일한 사례이며, 특사도 특별히 준다는 뜻으로 역시 드문 일이었다.

사실 휘종이 고려에 불골을 주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민심의 향배를 고려하건대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밀사 또는 특사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왕자지가 명주에 도착하여 송의 수도인 개봉까지 가면서 여러 사원과 도관에 들러 휘종의 장수를 비는 의례를 행하였던 것은 불골을 가져가는 것에 반발하는 송나라 불교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49] 이전에 의천이 송의 여러 절을 순례하며 축수한 적은 있지만, 고려 국왕의 명을 받은 왕자지 등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사원에서 축수하는 재를 올린 것은 송의 사찰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송 휘종이 고려에 불골을 하사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왕자지의 송나라 사행을 검토해보건대, 송 황실로부터 불골을 가져온 시기는 왕자지가 두 번째 송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1116년 7월이었을 것이다.[50] 그때에 별사 또는 특사의 범주에 드는 대성악과 더불어 '밀사'로 받은 것이 불골이었

49) 일찍이 선학은 왕자지가 송의 여러 절에서 재를 올린 것이 불아 및 두골과 관계가 있다는 탁견을 낸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종)11년 6월에 다시 왕자지·문공미 등이 대성악 이외에 예기로서 변두·보궤·준첩 등도 가져온 것 같다. 또한 불아와 두골을 금함에 넣어 보냈는데, 왕자지 등이 송에 건너가 大相國寺(卞京)·天寧萬壽觀(揚州)·天竺寺(杭州)·金山寺(閩州)·普炤王寺(泗州) 등에서 재를 베푼데 대한 답례이다." 金庠基, 앞의 책, 184면.

50) 남동신, 앞의 글, 38면.

다고 여겨진다.

요컨대, 송 휘종은 도교를 숭상하였고, 고려 예종도 유학을 진흥하고 도교를 진작시킨 군주로 알려졌는데, 송 휘종은 사원의 편액, 경전, 탑 등을 고려에 주어 고려 불교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예종은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불교를 발전시켰다.[51] 고려가 遼의 급속한 세력 약화와 신흥 국가 금의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타 고려를 끌어들여 요를 정벌하려는 송의 전략을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가 왕자지의 불골 장래였다.

2) 王字之와 鄭克永의 합작설

정극영은 同甲인 왕자지와는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인물이었다. 왕자지가 개국공신 王儒의 후손이며, 이자겸과 사돈을 맺을 정도의 名門 출신이었던 반면에 정극영은 향리의 자손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였고, 文詞에 뛰어나 일찍이 1104년 7월에 平章事 崔弘嗣를 따라 송에 갔는데,[52] 그 저술이 중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53] 그의 지위로 보건대 서장관으로서 중국에서 정·부사를 대신하여 각종 문장을 짓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 같다. 1118년에 정극영이 송에 가게 된 것도 이전에 서장관으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예종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극영이 불아를 가져왔다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宣和 원년 睿廟 15년에 入貢使 정극영과 이지미 등이 불아를 가져온 것이 지금 내전에 있다'고 하는 기록이다.[54] 睿廟 15년은 실제로 『高麗史』의 예종 14년으로 1119년이며, 그 해의 간지는 기묘가 아니라 기해라고 한다.[55] 이 내용을 다른 기록과 대조해

51) 일연은 고려중기 왕실의 후원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불경·불아 등이 수입되고 나말에 끊어졌거나 또는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고 있던 신라적인 불교전통이 귀족사회 안정의 토대 위에 재정비되어 나가는 것을 흡족하게 여겼다고 한다. 金泰植,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고려시대 인식」, 『蔚山史學』 제1집, 울산대 사학과, 1987, 31-37면.
52) 박용운, 앞의 글, 156면.
53) 「鄭克永傳」, 『高麗史』 권98.
54) 「前後所將舍利」,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權熹耕, 앞의 글, 170면.
55) 남동신, 앞의 글, 37면.

보면, 『高麗史』와 『동인지문사륙』에 정극영이 송에 간 것은 1118년 7월이었으며,[56] 다음 해 6월 이전에 돌아온 것은 그의 임명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인데,[57] 선화 원년이라고 한 것은 일연이 정극영의 불아를 가지고 온 것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봤음을 암시한다.

1118년 5월에 '예종이 친히 전에 납시어 입송사신 정극영과 이지미를 전별하는 데 제왕·재추를 불러 연회에 참석하게 하였다'는 『高麗史』의 기록과 더불어, 같은 해 8월에 정극영·이지미가 송에 가서 權適 등을 制科에 급제시켜 환국시키면서 친필 조서를 보내준 데에 사례하도록 하였고, 예종이 친히 표문을 짓고 손수 썼다고 한다.[58] 왕자지가 송에 갈 때와 같이 정극영이 송에 갈 때 제왕과 재추 등을 불러 연회를 한 것이나 예종이 송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짓고 썼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정극영의 사행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고려에서 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정극영 일행이 송의 紫宸殿에서 휘종을 알현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정사 정극영·부사 이지미와 더불어 進奉都鈐轄兼押物 金英美가 참여했다고 한다.[59] 『高麗史』의 기록에는 정극영이 사은사로 갔다고 하였으나, 중국 사서에서는 정극영 일행 중에 進奉物을 담당하는 관원이 있었다고 하므로 『三國遺事』의 入貢使—조공사절—와 더 잘 어울린다. 이러한 것들이 『三國遺事』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이다.

그러나 정극영은 인종 초에 한안인의 당여로 유배되었다가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후, 다시 사면되어 복직하였는데, 이 무렵에 지은 「衛尉卿翰林學士를 사양하는 표」에서 자신의 관력에 대해 숙종과 睿宗代에 '무릇 문장을 짓는 긴요한 임무나 禮儀를 시행하는 방법을 익히는 일 등에 종사하였다'고 하였을 뿐 송에 사신으로 다녀오고 불아를 가져온 것을 자신의 功績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60] 물론 벼슬을 사양하는 관인은 겸양해야 하므로 당

56) 「謝親策權適等賜第還國表」, 『東人之文四六』 권2 事大表狀. 이 글에는 표문을 예종이 직접 지었으며, 무오년(1118) 謝恩使 鄭克永이 가지고 갔다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57) 남동신, 앞의 글, 37면.
58) 『高麗史節要』 권8 예종 13년 8월;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3년 8월.
59) 『宋會要輯稿』 권197 蕃夷 渤海.

시에 불골을 가져온 것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지가 불골을 하사받아 왔다는 『高麗史』의 기록과 정극영이 불아를 가져왔다는 『三國遺事』의 기사를 모두 인정하여 왕자지와 정극영의 합작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근거는 고려가 원하는 귀중한 문물을 송에서 가져올 때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85년(선종 1) 8월에 호부상서 金上琦가 송 신종을 조문하고, 공부상서 林槩가 송 철종의 등극을 하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고려 사절단은 송 철종에게 『대장경』 1장 및 『華嚴經』 1부와 더불어, 『刑法書』·『太平御覽』·『開寶通禮』·『文苑英華』 등을 구입해 가겠다고 요청하였고, 철종은 『文苑英華』만을 허락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1090년 송에 갔던 이자의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귀국하였다. 또한 1098년(숙종 3) 7월에 송에 간 윤관은 『태평어람』을 요청하였고,[61] 송은 『太平御覽』과 『神醫補救方』을 교열한 후 다음 사신 편에 주기로 약속하였고, 『神醫補救方』은 1100년 6월에 송에 간 임의가 가져왔다.[62] 그와 더불어 고려가 『冊府元龜』와 『資治通鑑』의 하사를 부탁하자, 송은 『冊府元龜』는 이전에 판매한 바가 있으며, 『資治通鑑』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였다.[63] 송이 고려가 바라고 있는 전적을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한 것은 고려 사신이 더 자주 오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대성악의 하사와 고려인의 국학 입학 및 제과 급제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송이 안직숭에게 곡보 등을 주자, 고려의 사신이 가서 대성악을 받아왔으며, 고려의 사신이 진사를 송의 국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송에 가고, 고려의

60) 鄭克永, 「讓衛尉卿翰林學士表」, 『東人之文四六』 권11.
61)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3년 7월 기미.
62)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5년 6월 을축.
63) 송은 兵器·皮革·焰焇·硫黃 등 군용 물자와 더불어 서적을 사서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금하였는데, 서적에는 정치·군사의 정황이 기재되어 외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006년에는 『九經』의 책과 소를 제외한 책을 무역할 수 없도록 하였고, 1027년에는 송대의 신료들이 편찬한 책이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吳曉萍, 「官方對外貿易及其管理制度」, 『宋代外交制度研究』, 安徽人民出版社, 2006, 218-221면. 특히 『책부원구』·『태평어람』 등은 1000권에 이르는 거질의 類書로서 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이 적대국인 거란이나 여진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책들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張秀民, 강영매 옮김, 「목판 인쇄술의 발명과 발전」, 『중국인쇄사(一)』, 세창출판사, 2016, 215-216면.

학생들이 입학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휘종이 친히 시험을 치러 합격시켜 돌려보낸 것을 사례하기 위해 또 다시 고려의 사신이 송에 가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가 송에 요청하는 주요한 전적들에 대해 황제에게 요청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가져왔다는 것이 주목된다. 송상이나 송에 간 사신을 통해 『太平御覽』·『文苑英華』·『神醫補救方』과 같은 전적들이 송에서 편찬되었다는 정보가 고려에 전해지고, 그 후 고려의 사신이 송에 갈 때 조공품과 함께 표를 올려 그것의 하사나 구매를 요청하며, 송 조정이 논의를 거쳐 허락을 하면 고려가 다음 사행에서 그것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 대가를 치르고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예종 때 慧照國師가 왕명을 받고 송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遼本大藏經」 3부를 사서[市遼本大藏經] 왔다는 것도[64]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다. 이 시기에 송이 아무리 고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후사를 했다고 해도, 요에서 가져온 귀중한 대장경을 공짜로 고려에 줄 수 없었으니 고려가 비용을 가져가서 구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65] 사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송 황제에 요청하고 송 당국자와 협의하여 구매를 허락받는 일이 나중에 대가를 가지고 가서 받아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불아의 장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적어도 『三國遺事』의 내용상 송 徽宗이 도교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불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인데, 李仲若은 1108년경에 고려 사신을 따라 송에 가서 독자적인 도교를 습득하고 송의 도교를 도입하여 복원궁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므로[66] 당시 불교를 탄압

64) 「前後所將舍利」,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65) 혜조국사가 구입한 「요본대장경」은 大字本과 小字本 가운데 후자였으며, 구입한 것인 만큼 大藏全藏이었는데, 고려가 그것을 구했던 이유는 송본이나 송본 계통의 국내 전본에 비해 경문이 정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용섭,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봉안」, 『書誌學硏究』 제27집, 서지학회, 2004, 10-24면. 한편 일연이 혜조국사가 「요본대장경」을 구매해온 이야기를 넣은 것은 그것이 고려에 들어와 당시까지 해인사·정혜사·허참정댁 등 세 곳에서 잘 보관되고 있는 것을 들어 불아의 부실한 관리를 은연중에 비판하였다고 생각된다.

66) 김철웅, 「고려 국왕과 도교」, 『고려시대의 道敎』, 景仁文化社, 2017, 69-76면. 이중약이 송에 간 것은 1108년 형부상서 김상우와 예부시랑 韓皦如—한안인 초명—가 송에 갔을 때 함께 따라갔으며, 1110년 고려 측의 도교 수용 의사를 들은 송은 도사 2인을 고려에 파견하여 도교 교법을 훈도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철웅, 「도교 관련 인물」, 앞의 책, 318-319면.

하고 있는 도교계의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고서 그 상황을 국왕에게 전하였을 것이다. 예종과 고려 조정은 그것을 받아올 계획을 하고,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송 휘종에게 고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청하고 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이후 송 조정은 불사리를 갖고 있던 사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려에 주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그 사이 고려는 불사리에 대한 대가를 마련하여 사행 때 가져가 보상을 하고 받아 돌아왔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건대 睿宗代 불사리를 가져오는 데 이바지했던 사신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이자겸과 한안인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67] 왕자지와 정극영의 합작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왕자지가 1114년 또는 1115년에 송에 가서 불사리를 고려에 줄 것을 요청하여 송 휘종의 허락을 받고, 1118년에 송에 갔던 정극영이 1119년에 불사리를 받아 돌아왔던 일을 맡아,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왕자지와 정극영이 가져왔다는 두 사서의 기록이 일정하게 사실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적어도 B1의 1120년 5월에 예종이 왕자지가 가져온 불골을 내전으로 옮겼다는 기록과 시간상으로는 모순되지 않는다.

3) 인종 초 정국의 변화와 정극영 불아 장래설

『高麗史』에서는 불골을 왕자지가 송에서 가져왔다고 한 반면, 『三國遺事』에서는 정극영과 이지미가 가서 송의 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아를 몰래 받아[密授]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다. 정극영이 몰래 받은 것은 왕자지가 휘종에게 무언가를 은밀하게 받은 것[密賜]과 상통하는 표현이다. 불아는 사신들이 사비를 들여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송 황제의 허락을 얻는 등 두세 차례 이상의 사행이 있어야만 고려로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것이라

67) 睿宗代 중반 송에 가는 正使와 副使의 임명 사례를 보건대, 1114년에는 왕자지(이자겸파)와 문공언(한안인파?), 1115년 왕자지와 문공미(한안인파), 1117년 李資諒(이자겸파)과 李永(한안인파), 1119년 정극영(한안인파)와 이지미(이자겸파) 등이었다. 이처럼 이자겸과 한안인 일파를 동시에 임명한 것은 예종이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한 것이며 사행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睿宗代 불사리를 가져오는 과정도 그 이전에 『文苑英華』·『太平御覽』·大晟樂 등과 같은 중국의 최고 문화적 산품을 들여올 때와 마찬가지로 고려 사신들이 송에 특정 물품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비용을 가져가서 구매해오는 일을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高麗史』는 왕자지를, 『三國遺事』는 정극영을 장래자로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인물들의 역할은 적어놓지 않았다. 만약 『高麗史』의 불골과 『三國遺事』의 불아가 같은 것이라면 양 사서에 불골 또는 불아를 가져온 자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해명하는 단서를 인종 초의 정국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왕자지는 1122년에 57세 때 이부상서·참지정사·판호부사에 임명되어 3宰가 되었으나 곧 졸하였다. 그는 睿宗代 두 차례 사행을 하였는데, 당시에 송에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역정이기는 하지만, 송 조정이 고려를 책봉국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이전보다 고려를 후대하는 상황이어서 사신들은 많은 선물을 받고 사행 무역을 통해 일시에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송에 사신으로 가는 것은 특권이었다. 또한 요·금 교체의 매우 중요한 국제정세 변화의 시기에 사행의 책임자인 정사로서 두 번이나 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예종의 신임이 각별했으며, 정치적 위상이 높았음을 알려준다.

왕자지의 睿宗代 행적은 그의 사후에 사돈인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한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68] 그 덕분에 예종 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仁宗 初에 편찬된 『예종실록』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었을 것이다.[69] 그러나 1126년 이자겸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왕자지에 대

68) 왕자지는 Schulz가 부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안인 일파로 추정했으나, 왕자지와 이자겸이 사돈 관계를 맺었고, 뒤에 그의 아들 왕의가 이자겸 일파에 가담하여 그의 족당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겸 족당으로 파악해야 한다. E.J Schulz, 「韓安仁派의 등장과 그 役割—12世紀 高麗 政治史의 展開에 나타나는 몇 가지 特徵—」, 『歷史學報』 제99·100합집, 역사학회, 1983, 160면; 盧明鎬,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 제17집, 서울대 국사학과, 1987, 182-183면.

69) 『예종실록』의 편찬을 주창한 자들은 예종의 측근이었으며, 편찬자의 구성은 이자겸파의 박승중, 한안인파의 정극영, 중립적인 김부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종 초에 정국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 C1. [예종] 17년에 참지정사로서 졸하였고 나이는 57이었다. 시호는 章順이며, 예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뒤에 간관이 아뢰기를 "옛날의 대신은 국가에 큰 功德이 있어야 비로소 배향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지가 비록 전공이 있기는 하지만, 예종의 묘정에 배향된 것은 오직 왕의 은혜와 총애 때문입니다. 위로 임금을 바로잡거나 보필한 적이 없고, 아래로 백성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과 혜택을 준 적이 없으므로 제사를 받들며 장래에 보여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청컨대 有司로 하여금 알맞은 자를 선택하여 대신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制를 내려 가하다고 하였다. 아들 王毅는 王字之의 딸이 李資謙의 아들 李公儀와 혼인하였으므로 李資謙이 패하자 姻黨으로 연좌되어 유배되었다.[70]

C1은 왕자지가 사후에 예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나 간관의 건의에 따라 배향이 철회되었으며, 왕자지의 아들 왕의도 이자겸의 아들 이공의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이자겸의 반란이 실패한 뒤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간관이 배향 철회를 건의하는 시기는 이자겸의 반란이 진압된 뒤였음이 분명하다. 이자겸이 몰락한 뒤, 이자겸 세력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결국 왕자지가 공로도 없이 예종 묘정에 배향되었다는 간관의 건의에 따라 배향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에 정극영은 1122년에 翰林學士를 거쳐 寶文閣學士에 올랐으나, 1122년 12월에 韓安仁이 이자겸 세력을 견제하다가 오히려 '이자겸을 제거하려 한다'는 최사전 등의 모함을 받아 처형되자, 정극영은 한안인의 表弟로서 연루되어 외지로 유배되었다.[71] 그리고 1126년 이자겸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참여자가 바뀌어 막상 『예종실록』을 편찬한 사람은 김부의, 김부일 형제였다고 한다. 金秉仁, 「韓安仁 勢力과 李資謙 勢力의 構成과 性格」,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 硏究』, 景仁文化社, 2003, 105-106면.

70) 「王儒傳附 字之」, 『高麗史』 권92.

71) 정극영은 본관이 김포이며, 과거에 급제한 후 예종 때에는 『예기』를 進講하고 대간으로 활동하였다. 한안인의 일족으로서 이자겸의 권세를 견제하는 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1122년 이자겸에 의해 한안인 일파가 숙청될 때 정극영도 유배되었으며, 그의 매제인 崔巨鱗과 처남인 崔惟淸도 연좌되었다. E.J Schulz, 앞의 글, 151-152면. 최거린과 최유청은 한안인과의 관계를 따지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돈—姻婭—에 불과한데도, 정극영과의 친족관계로 인해 연좌되어 처벌되었던 것은 정극영이 한안인 일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盧明鎬, 앞의 글, 179-183면.

비로소 사면되어 東京留守에 임명되었으며, 1127년에 判尉衛寺事·翰林學士·知制誥에 이르러 61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이처럼 1126년에 이자겸 일파는 몰락하고, 한안인 일파가 복권되는 정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불아를 가져온 일에 관한 기억이 바뀌었던 것 같다. B2 사료(1129)와 B3 사료(1130)에서와 같이 인종이 불골을 모시고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자겸파의 왕자지가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대신 누군가 왕자지가 했던 일을 수행했던 사신을 내세워야 했는데, 왕자지 다음으로 송에 갔던 이자량도 이자겸과 가까워서 역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량 다음 번 송에 가는 사절단의 정사였던 정극영이 선택되었다. 그는 1127년에 죽었지만 이자겸에 의해 유배되었던 경력까지 있었으므로 불아의 장래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三國遺事』에 기록된 '佛牙 將來'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이후에는 정극영의 불아 장래가 사실인 것처럼 되고, 그가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서사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불아가 고려에 오게 된 것은 송 휘종의 도교숭상과 불교 탄압 때문이었는데, 1108년경부터 휘종이 도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崇道抑佛의 편향된 종교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였고, 1119년 정월에는 '佛'을 비롯한 일체의 불교식 명칭을 중국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송에서 불아를 바다에 띄워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며,[72] 정극영은 예종초에 송에 가서 도교를 배워온 李仲若과 사돈이었으므로 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아울러 금인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도참 역시 풍수에 일가견이 있는 정극영과 어울린다. 왜냐하면 술사가 참언을 가지고 왕에게 서경 龍堰에 궁궐을 따로 창건하여 때때로 순행할 것을 권하자 1106년 9월에 왕명을 받고 司天少監 崔資顯, 太史令 陰德全·吳知老, 注簿同正 金謂磾 등과 더불어 서경에 가

72) 남동신, 앞의 글, 41면.

서 용언의 옛 터를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73]

또한 송 휘종 때 퍼졌던 도참의 '금인'을 도사들이 불교도라고 했지만,[74] 사실은 '정강의 변'을 일으켜 송을 멸망시킨 '금나라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송이 고려의 충고를 들었다면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1116년 7월에 大晟樂을 하사해준 것을 사례하러 갔던 이자량이 귀국하면서 송 휘종을 만났을 때[75] 고려가 여진과 국경을 접하였으니 다음 해 송에 조회하러 오면서 여진인 몇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이자량은 "여진이 인면수심으로 오랑캐[夷獠]들 중에서도 가장 욕심 많고 추악하니 상국과 통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였고, 이 일에 대해 『高麗史』 찬자는 마침내 송이 여진과 통교하다 靖康의 화가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76]

그와 더불어 1118년 2월에 송이 武義大夫 馬政을 여진—금—에 보내 거란의 협공을 제안하자, 이 소식을 들은 예종이 1118년 8월에 의관들을 데리고 온 송 합문지후 曹誼에게 송이 여진을 끌어들여 거란을 도모하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호랑이와 같은 여진에 대해 대비할 것을 권하였다고 한다.[77] 결국 고려인들의 충고를 무시한 송이 정강의 변을 자초한 셈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만들 때 불아를 가져오는 인물로는 1114년과 1115년에 사행을 한 왕자지보다 1118년에 가서 1119년에 귀국한 정극영이 더욱 적합하다.

요컨대, 본래 불골을 가져오는데 왕자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자

73) 『高麗史節要』 권7 世家 예종 원년 9월.

74) 금인은 사전적 의미로 '구리로 만든 사람의 像' 또는 '불상'을 말하며, 후자는 금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諸橋轍次, 「金, 金人」, 『漢和大辭典』(修訂版), 권11, 大修館書店, 1985d, 467면. 금인이 곧 불상이며, 그것은 불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불교 신도가 되어야 금인이 멸망시킨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다.

75) 『高麗史』 권14 世家 예종 11년 7월 기유

76) 「李子淵傳 附 資諒」, 『高麗史』 권9.

77) 예종의 이러한 발언은 『貴耳集』 등 중국 여러 사서에 있으며, 조의는 1118년 7월에 고려에 왔다가 1119년 2월에 송으로 귀환하였다.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120-121면. 내용상으로 보건대, 조의가 귀국하면서 예종을 알현하였을 때 나눈 대화였을 것 같다.

겸의 몰락과 함께 그의 공로는 서서히 잊혀져갔고, 『三國遺事』의 내용처럼 정극영이 장래의 주체로 기억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三國遺事』의 '佛牙 將來' 설화는 송나라 사람들이 도교를 숭상하여 불교 숭배 대상인 불아를 내버리는 잘못을 저질러 결국 나라가 망하기에 이른 송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도, 위기에 놓인 불아를 몰래 사온 고려인의 지혜로움과 더불어 불아를 갖게 된 고려 왕실 번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4. 맺음말

『三國遺事』의 「前後所將舍利」조에는 고대와 고려시대 불사리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 실려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의상이 천제로부터 받았고, 고려 예종 때 송에서 장래된 불아에 관한 것으로 고려에 가져오게 되는 과정과 예종의 불아 숭배, 몽골과의 전쟁 시기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삼별초의 반란 시기에도 무사히 지켜낸 일, 충렬왕대 국청사 탑에 불아를 봉안하고 그것을 친견한 증언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보면 몽골과의 전쟁 시기부터 충렬왕대의 일화는 비교적 당대의 일들로 각유, 심감, 무극 등에 의해 전해진데 반하여 睿宗代 내용은 일연 시기에도 150년 이상 오랜 일이었으므로 『高麗史』 등과 대조하여 사료의 신빙성을 검증해보았다.

먼저 『三國遺事』에서는 睿宗代 송에서 가져와 충렬왕대까지 남아있는 것이 불아라고 했지만, 『高麗史』의 불골은 불아와 더불어 두골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三國遺事』에서는 중간에 불아와 사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불아가 진짜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것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전자는 정극영이 장래했다고 하였으나, 후자는 왕자지가 송 휘종으로부터 하사 받아왔다고 하였다.

불아를 담은 용기인 불아함은 『高麗史』의 기록에는 송에서 순금합에 불골을 담아왔다고 하였으며, 『三國遺事』에 실제 그것을 본 기록에 의하면, 백은함, 침향합, 순금함, 유리함, 나전함 등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순금합에 담

겨져 왔으며 후대에 더해져 모두 5개의 합과 함의 안쪽에 불아가 들어있게 되었으나, 불아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는 유리함만 돌아왔고, 다시 백은 합에 담겨 모셔지게 되었다.

불골을 봉안한 장소는 처음에 궁궐 밖에 외제석원에 있다가 예종대 궁궐의 후원인 산호정으로 옮겼고, 인종대 인덕궁과 중화전을 거쳐 명종대 시원전에 두었는데, 주로 궁궐 내의 전각이었으며 그것은 국왕이 불아의 소유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三國遺事』에서는 예종대 시원전에 있었으며, 불아를 되찾은 이후에도 강도 궁궐의 시원전 전각에 두었다고 하였다. 불골은 궁궐 내에 모셔지다가 국왕이 행사를 한다거나 고승의 요청에 따라 잠시 안치 장소가 바뀌기도 했는데, 이 경우 그것을 받아가는 관원이 '준수기'를 작성하였고,『자문일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예종대 고려 사신이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불아를 송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요가 쇠퇴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송이 고려 및 여진과 연합하여 요를 제압하려는 외교적 전략에 따라 중요한 문화적 산물을 주어 고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 사서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예종대 송에서 불골 또는 불아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부분이다.

『高麗史』의 예종대 기록이 예종 사후 편찬된『예종실록』을 인용한 것이 많았고,『三國遺事』의 설화적인 내용과 달리 간결하게 예종, 인종, 명종 등의 불골 관련 의식을 적었으므로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송에서 불골을 가져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왕자지였음이 분명하며,『三國遺事』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왕자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송 휘종으로부터 불골을 하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뒤에 정극영이 그것을 받아왔다고 하는 합작설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극영이 불아의 장래자로『三國遺事』에 전하는 것은 인종 초 정국의 변화에 따라 두 인물의 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종 말에 죽은 왕자지는 사돈인 이자겸 덕분에 예종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으나 이자겸 몰락 이후 배향이 철회되었다. 반면에 정극영은 이자겸의 반대 세력인 한안

인의 당여라고 하여 1122년 말에 유배되었으나 1126년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사면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아의 장래자에 대한 기억에도 영향을 끼쳐서, 왕자지의 역할은 사라지고, 대신 정극영이 그 일을 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뒤에 금이 송을 멸망시킨 상황 등을 반영하여, 송 휘종의 도교숭상과 불교 배척을 연관시키고 '금인이 송을 멸망시킨다'는 도참으로 불교가 탄압받아 결국 불아사리가 배에 실려 해외로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리고 장래자인 정극영의 활동 내력을 참고하여, 정극영이 그것을 알고 관원에게 天花茸 50령과 저포 300필을 뇌물로 주고 불아를 몰래 받아 가져오고, 빈 배는 떠내려 보냈다는 '불아를 가져오는 경위'를 담은 「前後所將舍利」조의 기록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극영의 '불아장래설'은 1122년 이자겸파의 한안인파 숙청, 이자겸의 난 진압, 한안인파의 복권으로 이어지는 정국변화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東人之文四六』, 『海東傳弘錄』, 『法苑珠林』, 『宋會要輯稿』.

了圓 撰, 오지연 옮김,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 동국대 출판부, 2017.
一然 撰,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 고려대 출판부, 2014.
諸橋轍次, 『漢和大辭典』(修訂版), 권3, 大修館書店, 1985a.
_____, 『漢和大辭典』(修訂版), 권4, 大修館書店, 1985b.
_____, 『漢和大辭典』(修正版), 권8, 大修館書店, 1985c.
_____, 『漢和大辭典』(修訂版), 권11, 大修館書店, 1985d.

權熹耕, 「三國遺事를 통해 본 高麗的 시각」, 『書誌學硏究』 제20집, 書誌學會, 2000, 157-212면.
金秉仁,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 硏究』, 景仁文化社, 2003.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서울대 출판부, 1985(재간행).
金相鉉,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硏究 現況」, 『佛敎硏究』 제26호, 한국불교연구원, 2007, 9-36면.
金昌賢,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a.
_____,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신서원, 2011b.
김철웅, 『고려시대의 道敎』, 景仁文化社, 2017.
金泰植, 「三國遺事에 나타난 一然의 고려시대 인식」, 『蔚山史學』 제1집, 울산대 사학과, 1987, 21-43면.
김혜완, 「고려후기 불사리신앙—진신과 분신사리신앙—」, 『역사와현실』 제91호, 한국역사연구회, 2014, 71-103면.
남동신, 「『三國遺事』 속의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조」, 『新羅文化祭學術會議論文集』 제36집,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2016, 23-58면.
盧明鎬,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 제17집, 서울대 국사학과, 1987, 168-225면.
朴龍雲,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제81집, 일지사, 1995, 188-210면.
_____,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下)」, 『韓國學報』 제82집, 일지사 1996, 115-142면.
_____, 『高麗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2002.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오용섭,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봉안」, 『書誌學硏究』 제27집, 書誌學會, 2004, 5-26면.
윤선태,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史硏究』 제78호, 한국고대사학회, 2015, 357-385면.
이강래, 「『三國遺事』 편찬의 유기성 문제」, 『역사학연구』 제40호, 湖南史學會, 2010, 1-50면.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장미란,『(오대산월정사 편) 한국의 사리신앙 연구』, 운주사, 2014.
張秀民, 강영매 옮김,『중국인쇄사(一)』, 세창출판사, 2016.
조경시, 「高麗 顯宗의 佛教信仰과 정책」,『韓國思想史學』 제2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175-209면.
周炅美,「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東洋學』제3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3, 363-382면.
_____,『중국 고대 불사리 장엄 연구』, 일지사, 2003.
河廷龍,『三國遺事 사료비판』, 민족사, 2005.
韓基汶,『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_____,「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한국중세사연구』제38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 265-299면.
황인규,「고려시대 내원당과 고승」,『보조사상』제37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 99-148면.
E.J Schulz,「韓安仁派의 등장과 그 役割—12世紀 高麗 政治史의 展開에 나타나는 몇 가지 特徵—」,『歷史學報』제99·100합집, 역사학회, 1983, 147-183면.

吳曉萍,『宋代外交制度研究』, 安徽人民出版社, 2006.

【Abstract】

A Study on Records in '*Samgukyusa*' Regarding Transport of Bul-a (Buddha's tooth)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and the Messenger

Lee, Jin-Han*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in Goryeo Dynasty, Song Dynasty employed a diplomatic strategy of joining forces with Goryeo to suppress Liao Dynasty, and thus wanted to ingratiate itself with Goryeo Dynasty by giving valuable cultural gifts. For this reason, Goryo Dynasty could receive bul-a (Buddha's tooth), the most cherished item in Buddhism, from Song Dynasty. Records on the transport of bul-a and subsequent management in Goryeo are found in the 'Jeonhusojangsarijo' part of 'Samgukyusa,' where the records say that Goryeo's official, Jeong Geukyoung, brought bul-a from Song. However, in 'Goryeosa,' it is said that Wang Jaji brought bul-a from Song. Considering that much of the records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in 'Goryeosa' were quoted from 'Yejongsillok' that was published after the death of the King, and that compared to fictional contents in 'Samgukyusa,' 'Goryeosa' succinctly recorded Buddhist rituals during the reigns of King Yejong, King Injong, and King Myoungjong, it is likely that the records of 'Goryeosa' are more credible.

Still the records of 'Samgukyusa' say that Jeong Geukyoung brought bul-a, as the two figures' fate diverged due to political changes in the early years of King Injong's reign. Wang Jaji passed away in later years of King Yejong's reign, and was enshrined at King Yejong's shrine thanks to his family relationship with Lee Jagyeom; however, after Lee Jagyeom lost power, the privilege was revoked. In comparison, Jeong Geukyoung was exiled in 1122 because he was on the side of Han Anin, a political opponent of Lee Jagyeom, but was forgiven after the rebellion of Lee Jagyeom in 1126 was suppressed. This circumstance affected the event of bringing bul-a as well, and accordingly, Wang Jaji's role was erased in history, and it was altered to the act of Jeong Geukyoung.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Keywords: *Samgukyusa*, *Goryeosa*, bul-a (Buddha's teeth), Song Dynasty, King Yejong, Wang Jaji, Jeong Geukyoung.

접수일: 2018.03.30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10